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나눔으로 함께한 10년...소중합니다

노숙인들의 쉼터 조계종 보현의 집 4인방



보현의 집에서 따뜻한 식사를 책임지는 어머니같은 보살들

조계종 보현의 집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노숙인들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노숙복지시설이다. 이곳에서 노숙인들의 따뜻한 끼니를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같은 분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10년 넘게 보현의 집에서 급식 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순자, 이병팔, 오정애, 이명운 보살들이다.

2000년부터 보현의 집에서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 보살들은 이제 가족처럼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정이 깊어 들었다. 이명운 보살은 "가족처럼 정이 많이 들어서 봉사가 없는 날에도 보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이면 보현의 집을 찾아 따뜻한 식사를 준비한다. 몇 년 전에는 조리 재료를 다듬을 공간이 없어서 마당에서 작업을 했다. 추운 겨울에는 손발이 시릴 정도였지만 이제는 보현의 집에서 휴게실도 마련해줘 봉사활동이 한결 편안해 졌다.

이병팔 보살은 "겨울에 김장 김치가 마당에 가득히 쌓여 있어도 수다를 좀 떨다보면 어느새 김장이 끝난다. 한 쪽에서 저리든 다른 쪽에서는 버무리면서 손발이 척척 맞는단"고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깊은 신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같은 불자라는 점도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힘이 된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각자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던 이야기를 하다보면 신심도 더욱 깊어진다.

이명운 보살은 "같은 불자다보니 마음이 잘 통하고 봉사를 하기에 편하다. 욕심을 내는 사람도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해
불자여서 봉사도 즐거워

이명운 보살은 "봉사를 하다보니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봉사를 다니면 좋다고 권유도 한다"고 밝혔다.

보현의 집은 성실하고 꾸준한 활동을 펼쳐 외부에서 보시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불자들의 보시도 줄어들었다. 눈에 띄게 보시가 줄어들 것을 볼 때면 보살들의 마음도 안타깝다고 한다.

보현의 집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탓인지 오정애 보살은 식당을 열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꿈을 늘 가슴에 담고 있다.

오정애 보살은 "보현의 집에서 만나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참으로 소중한 인연들이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항상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대중과 함께해 온 순례길

108산사순례기도회 5주년...
신행문화 새바람 일으키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108산사 순례기도회(회주 선목혜자 스님)가 창립 5주년을 맞아 10월 1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바른 신심, 자비로운 나눔, 함께하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창립 5주년 기념 대법회 및 영산재를 봉행했다.

2006년 첫걸음을 내딛은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현재 5000여 회원들이 동참하고 있을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성지 순례 차원을 넘어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정립시키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혜자 스님은 "108산사 순례회가 단순한 성지 순례에 그쳤다면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사회적 의미를 실천했기 때문에 5주년까지 올 수 있었



108산사 순례기도회

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108 순례회는 사찰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 특산물을 회원들이 구입할 수 있는 농어촌 직거래 장터를 열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농촌사랑봉사를 발족해 농촌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다.

또한 순례회는 군중교구를 방문할 때마다, 회원들의 자비로 마련한 초코파이를 보시하기도 했다. 108

산사 순례회의 초코파이는 군중병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만큼 인기가 많다. 그동안 보시한 240만여 초코파이는 한반도를 왕복하고도 남을 양이다. 108산사 순례회는 이밖에 도 환경 사랑 실천 운동, 108호행상 시상, 다문화가정 108인연 맺기, 108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선행을 펼쳐오고 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룬 성과

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주 선목혜자 스님



"부처님의 가피와 신도들의 강한 불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는 청담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서 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자 스님(사진)은 108산사 순례회 5주년의 성과가 "신심을 발휘한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혜자 스님은 "처음 통도사에서 시작당시, 직거래 장터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한 회씩 거듭하면서 신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낸 것이다"고 밝혔다.

108산사 순례회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7-9명의 대식구들도 볼 수 있다. 108산사 순례회에 참여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자식이 대를 잇게 하며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혜자 스님은 "언젠가 북한의 사람들도 순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북한을 돕기 위한 공양미 300석을 모으기도 했다"며 "앞으로 회향까지 지구처럼 보살행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불교음악으로 하나되자

총지종 창종 40주년 맞아
재가불자대회·음악제 봉행

불교총지종(총리원장 지성 종사)이 창종 40주년을 맞아 총지종 교도들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염원하는 음악예술제를 연다.

총지종은 10월 29일 오후 2시 여의도 KBS홀에서 '총지 40년 통일 음악예술제'를 열고 '사회화합과 계층간 융화의 한마당'을 주제로 불교음악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행사는 200여 합창단 및 공연단원이 참가하며 총지종 전국 연합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매디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과 함께 주현미, 안치환, 추가열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선보일 예정이다.

2000여 관객이 참석하는 이번 대규모 행사에는 세터민과 이주노동자도 함께한다.

음악예술제 집행위원장 인선 정사(총지종 총무부장)는 "기존의 불교 행사가 산사에서 이루어진 공연 위주의 행사였다면 총지종은 이를

과감히 탈피해 도심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총지종은 27~29일 재가불교의 이념과 전략을 논의하는 '제5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 대회'를 서울 올림픽 파크텔과 경희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승단불교와 재가불자'라는 주제로 17개국 50여 학자 및 불교관련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크리스티나 장(세계여성불자협회 회장)의 'M3 세대와의 만남: 대만 청년불자들과의 대화', 진 리브스(중국 북경인민대 석좌교수)의 '재가불자와 비구니의 후원자 관세음보살', 김호성 교수(동국대)의 '효(孝)와 출가의 딜레마' 등 주제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인선 정사는 "불교의 미래는 재가불자의 손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회는 세계 각지의 재가불자 성장의 의미를 상호 이해하고 그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공불련 발전 위해 용맹정진 하겠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 공불련 신임회장 취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설동근, 이하 공불련)가 10월 8-9일 대구 동화사에서 창립 11주년 기념법회 및 대의원총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사진)이 공불련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설동근 차관은 "그동안 공불련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교 신행단체의 활동은 타종교에 비해 저조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며 "공불련의 조직력 강화와 조계종을 비롯한 종파들과 공불련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 강화 등 앞으로 공불련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설 차관은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불교 신행단체의 느슨한 조직력 과 소극적인 대사회활동의 문제"라며 "앞으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라는 깃발을 당당히 내세워 대



사회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설 차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을 맞아 불교종단,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불교청년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과 연대해 어린이 포교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법회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 스님, 하북동 포교부장, 설동근 신임 공불련 회장, 이재만 대구시 동구청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으며, 별보기 명상, 동화사 산내암자 순례, 초조대장경 복간본 친견, 건봉사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 친견, 음악회 등이 진행됐다.

이은정 기자 soe94@naver.com

외국인 최초 방문지로 봉사간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날마다좋은날이 반갑다연우야, 전국병원불자연합회와 함께 10월 29일~11월 3일 라오스 비엔티안주 무앙푸안군 파쌍마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라오스 파쌍마을은 비엔티안 공항에서 자동차로 4시간 가량 이동해

야 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외국인 봉사자의 방문이 전무했던 지역이다.

날마다좋은날은 의료 봉사팀과 실무팀으로 나눠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 봉사팀은 혈압검사, 혈당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초음파 등의 전문검사를 비롯해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 처방과 조제약 배

포, 구충제 복용지도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 실무팀은 벽화그리기, 즉석사진 촬영, 식사 준비 등을 수행한다.

황재운 반갑다연우야 단장은 "이번 봉사활동에는 약 50여 명의 봉사자가 참가한다"며 "현지에서 많은 불편이 따르겠지만, 부처님 인연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각자의 재능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0주년 기념행사

우리나라 최고 불교교육기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0주년!

1991년 설립,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으로
세상에 혜명과 비전을 제시해 온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불교리더십으로 불국토의 이상사회를
구현하는데 새로운 다짐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불교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2011년 11월1일 (화) 18시 30분
• 장소 : 엠베서더호텔

dongguk UNIVERSITY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지붕공사